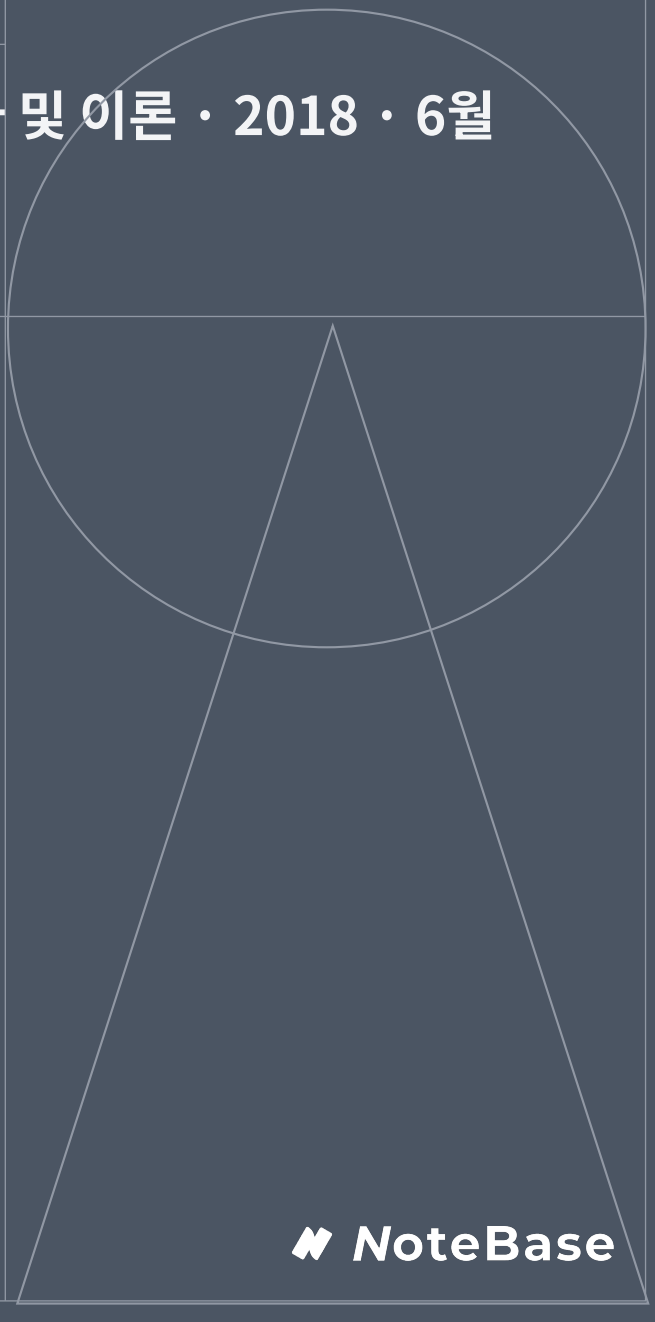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8 · 6월

문 1. 스페인 그라나다에 현존하는 귀중한 아랍식 중정으로, 알함브라 공원 내 사분정원(차할바그: Chahar-Bagh)의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중정은?

① 천인화의 중정

② 사자의 중정

③ 레하의 중정

④ 다라하의 중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알함브라의 여러 중정 가운데 차할바그의 사분 구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공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사자의 중정은 중앙 분수에서 네 방향으로 수로가 뻗어 중정을 네 구획으로 나누는 대표적 사분정원형 중정이다.
천인화의 중정은 알베르카 중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긴 수반과 양쪽 식재가 중심이므로 사분정원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레하의 중정은 후대에 조성된 비교적 작은 중정으로 차할바그의 대표 사례로 보지 않는다.
다라하의 중정은 화단과 정원수가 강조된 녹음성 중정으로 사자의 중정처럼 네 수로가 직교하는 구성이 핵심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천인화의 중정은 알베르카 중정을 가리키며 긴 직사각형 수반과 양쪽 식재가 핵심이다. 차할바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중정은 천인화의 중정이 아니라 사자의 중정이다.
2번 O: 사자의 중정은 중앙 분수에서 네 개의 수로가 직교하며 뻗어 중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므로 차할바그의 사분 구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3번 X: 레하의 중정은 후대 황제의 방과 연결된 작은 중정으로 중앙 분수와 모서리 식재가 중심이다. 차할바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중정은 레하의 중정이 아니라 사자의 중정이다.
4번 X: 다라하의 중정은 화단과 정원수로 둘러싸인 정원성 중정에 가깝고, 사자의 중정처럼 중앙 분수에서 네 수로가 중정을 사분하는 형식이 아니다. 차할바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중정은 다라하의 중정이 아니라 사자의 중정이다.

오답 포인트

알함브라의 중정들은 모두 물과 식재를 사용하므로 이름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차할바그는 중앙의 수원에서 네 방향 축이 뻗어 공간이 사분되는지가 핵심이므로 긴 수반형 중정이나 화단형 중정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중앙 분수와 수로의 배치를 먼저 본다. 중앙에서 네 수로가 직교하여 네 구획을 만들면 차할바그 계열로 판단할 수 있고, 긴 연못 하나가 축을 이루면 다른 형식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차할바그는 사분 정원이며 알함브라에서는 사자의 중정이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문 2.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정원의 독립적 장식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포르탈레(Portale)는 다양한 장식이 가미된 동굴이다.

② 니키아(Nicchia)는 조각을 놓거나 신주, 성체를 모셔두기 위해 벽면의 일부를 오목하게 조각한 것이다.

③ 발라우스타(Balausta)는 주변의 경치를 조망하기 위해 설치된 전망대이다.

④ 비알레(Viale)는 물을 계단 형식으로 낙하시켜 동적인 아름다움을 관상하기 위한 수경시설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 요소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포르탈레는 정원이나 건축의 장식적 출입구이다.
니키아는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조각상이나 성물 등을 두는 벽감이다.
발라우스타는 난간을 이루는 난주 또는 난간 형식이다.
비알레는 수목이 늘어선 넓은 길이나 산책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포르탈레는 출입구나 문틀을 뜻하는 장식적 문이다. 다양한 장식이 가미된 동굴은 그로타(grotta)에 가깝다.
② O
니키아는 벽면 일부를 오목하게 만들어 조각상, 신주, 성체 등을 두는 벽감이다. 선지의 설명이 용어의 기능과 형태를 정확히 짚고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주변의 경치를 조망하기 위해 설치된 전망대"이다. 발라우스타는 전망대가 아니라 계단이나 테라스 가장자리에 두는 난간 또는 난주 형식이다. 전망 기능의 시설은 벨베데레(belvedere)에 가깝다.
④ X
틀린 부분은 "물을 계단 형식으로 낙하시켜 동적인 아름다움을 관상하기 위한 수경시설"이다. 비알레는 수경시설이 아니라 직선 또는 수목이 열식된 길이다. 계단식 낙수 장치는 카테나 다쿠아(catena d'acqua)와 같은 수경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포르탈레와 그로타, 발라우스타와 벨베데레, 비알레와 수경시설의 기능을 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이탈리아어 원어가 낯설 때는 형태보다 기능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벽을 파서 무언가를 두는 요소이면 니키아, 길의 성격이면 비알레, 출입구이면 포르탈레, 난간이면 발라우스타로 분류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니키아는 벽감, 비알레는 길, 발라우스타는 난간, 포르탈레는 문이다.

NoteBase

문 3.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 주축선의 조경 요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

②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 → 물화단 → 라토나 분수

③ 라토나 분수 → 아폴로 분수 → 물화단 → 왕자의 가로

④ 아폴로 분수 → 왕자의 가로 → 물화단 → 라토나 분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베르사유 정원의 중심 축선에서 주요 조형 요소가 궁전에서 바깥쪽으로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물화단 - 궁전 정면 테라스의 수경 공간으로 축선의 출발점에 놓인다.
2. 라토나 분수 - 물화단 아래에서 중심축을 이어 받는 분수이다.
3. 왕자의 가로 - 라토나 분수와 아폴로 분수를 연결하는 직선 축선의 보행 공간이다.
4. 아폴로 분수 - 대운하 쪽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중심 초점 공간이다.

왜 이 순서: 베르사유의 동서 주축은 궁전 앞 물화단에서 시작해 라토나 분수를 지나 왕자의 가로를 따라 아폴로 분수로 이어지므로, 앞 공간이 뒤 공간의 시각축과 동선의 전제가 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 물화단이 궁전 바로 앞에 있고 그 아래에 라토나 분수가 놓인다. 이어서 중앙 축선의 직선 공간인 왕자의 가로가 전개되고, 그 끝 쪽에 아폴로 분수가 배치되므로 맞는 순서이다.

② X
- 틀린 부분: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 →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올바르게는: 물화단이 가장 먼저 오고 아폴로 분수는 뒤쪽에 온다. 따라서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가 맞다.

③ X
- 틀린 부분: "라토나 분수 → 아폴로 분수 → 물화단 → 왕자의 가로".
- 올바르게는: 물화단이 라토나 분수보다 앞에 있고, 왕자의 가로는 라토나 분수와 아폴로 분수 사이에 온다. 따라서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가 맞다.

④ X
- 틀린 부분: "아폴로 분수 → 왕자의 가로 →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올바르게는: 아폴로 분수는 축선의 시작점이 아니라 뒤쪽 초점 공간이다. 따라서 시작은 물화단이며 전체 순서는 "물화단 → 라토나 분수 → 왕자의 가로 → 아폴로 분수"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베르사유 축선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순서를 거꾸로 떠올리기 쉽다는 점이다.
궁전에서 대운하 방향으로 본다는 기준을 놓치면 아폴로 분수나 왕자의 가로를 앞쪽 요소로 착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축선 배열 문제는 반드시 출발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이 문항은 궁전 정면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중심축이므로, 궁전 앞 요소인 물화단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분수와 가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베르사유 중심축은 "물-라-왕-아" 순서이다. 물화단에서 시작해 라토나, 왕자의 가로, 아폴로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4. 회랑식 중정 형식을 가진 정원의 형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대 로마의 아트리움(Atrium)

② 중세 유럽의 수도원정원(Cloister garden)

③ 고대 로마의 페리스틸리움(Peristylium)

④ 알함브라 사자의 중정(Court of L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랑식 중정 정원의 대표 형식을 구분하면서 로마의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랑식 중정 형식은 중정을 주랑이나 아케이드가 둘러싸는 폐쇄형 정원 형식이다.
아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의 중심 중정으로 천창과 임플루비움이 핵심인 공간이며, 회랑식 정원의 대표 형식과는 구별된다.
페리스틸리움은 기둥열이 둘러싼 후정원이며, 수도원정원과 알함브라의 사자의 중정도 회랑 또는 아케이드가 중정을 감싸는 형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아트리움은 고대 로마 주택의 중앙 공간이지만 개구부와 임플루비움이 중심인 중정이다. 틀린 표현은 '회랑식 중정 형식'이다. 올바르게는 고대 로마의 회랑식 중정 정원은 아트리움이 아니라 페리스틸리움이다.
② O: 중세 유럽의 수도원정원은 사방을 회랑이 둘러싼 폐쇄형 중정이다. Cloister garden 자체가 회랑식 중정의 전형에 해당한다.
③ O: 고대 로마의 페리스틸리움은 열주가 둘러싼 정원형 중정이다. 주랑이 중정을 감싸는 구조이므로 회랑식 중정 형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O: 알함브라 사자의 중정은 중정을 아케이드와 주랑이 둘러싸는 궁정 정원이다. 이슬람 정원의 대표적 회랑식 중정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로마 주택 용어라는 공통점 때문에 ①의 아트리움과 ③의 페리스틸리움을 같은 유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아트리움은 주거 중심의 실내성 중정이고, 페리스틸리움은 열주가 둘러싼 정원형 중정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정을 둘러싼 요소가 회랑·열주·아케이드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주랑이 중정을 감싸면 회랑식 중정이고, 천창과 임플루비움이 중심인 로마식 주거 중정이면 아트리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트리움은 주거 중심 중정이고, 페리스틸리움은 열주가 둘러싼 정원이다.

NoteBase

문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역사상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부지의 일부를 위락용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른 한 부분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택지 구성 방식으로 계획해, 재정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① 하이드 공원(Hyde Park)
② 리젠트 공원(Regent Park)
③ 버컨헤드 공원(Birkenhead Park)
④ 티에르가르텐(Tiergarte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 공원사에서 버컨헤드 공원의 조성 배경과 택지 분양 방식의 의미를 다른 유럽 공원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하이드 공원은 왕실 사냥터에서 시민에게 개방된 런던의 기존 왕실 공원이다.
리젠트 공원은 존 내시의 계획 아래 조성된 런던의 왕실계 도시 공원이다.
버컨헤드 공원은 조셉 팩스턴(Joseph Paxton)이 설계하여 1847년에 개장한 공원으로, 역사상 최초로 공공재원(세금)으로 조성된 시민 공원의 대표 사례이다. 공원 부지와 인접 택지를 함께 계획해 택지 분양 수익으로 조성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이 공원을 방문한 뒤 뉴욕 센트럴파크 설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티에르가르텐은 베를린의 왕실 수렵지에서 발전한 도시 공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하이드 공원은 원래 왕실 사냥터였던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된 사례이므로, 시민 주도로 새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택지 분양으로 재정을 확보한 사례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이 설명을 하이드 공원에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왕실 공원이 공개된 사례이다.
2번 X: 리젠트 공원은 왕세자 섭정기 런던 개발 계획 속에서 조성된 공원이다. 틀린 표현은 택지 구성 방식으로 재정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시민 공원이라는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존 내시가 설계한 왕실계 도시 개발 공원이다.
3번 O: 버컨헤드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공원 부지와 주변 택지를 함께 계획하여 분양 수익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제시문과 가장 정확하게 일치한다.
4번 X: 티에르가르텐은 베를린의 왕실 수렵지에서 발전한 공원이므로, 근대 시민 공공공원과 택지 분양 결합 모델의 최초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시민 공공공원 조성 모델의 사례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왕실 수렵지 기원의 공원이다.

오답 포인트

하이드 공원, 리젠트 공원, 티에르가르텐도 모두 유명한 유럽 도시 공원이어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핵심 단서는 시민 공공공원, 공원과 택지의 결합 계획, 분양 수익을 통한 재원 조달이라는 세 요소이며, 이 조합은 버컨헤드 공원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 공원사 문제에서 '시민을 위한 최초기 공공공원', '주변 택지 분양', '재정적 성공'이 함께 나오면 버컨헤드 공원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왕실 사냥터나 왕실 개발 공원이라는 단서가 보이면 하이드 공원, 리젠트 공원, 티에르가르텐을 우선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버컨헤드 공원 = 시민 공공공원 + 주변 택지 분양 모델이다.

NoteBase

문 6. 프랑스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적 특징을 받아들여 이를 프랑스 스타일로 변경시켰다.

② 퐁텐블로에는 네 부분으로 구획된 왕의 화단을 만들고, 중앙에 방형의 연못과 분수를 조성하였다.

③ 생 클루(Saint-Cloud)는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2.4km의 거대한 테라스가 조성되었다.

④ 르 노트르는 평면적이고 터 가르기 수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정원양식을 창안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프랑스 조경의 형성 과정과 대표 정원 및 르 노트르 양식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프랑스 조경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영향을 받아 출발했지만, 프랑스식 축선과 대칭, 평면적 파르테르를 강화하여 독자적인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르 노트르의 정원은 기하학적 축선, 평면적 파르테르, 원근을 활용한 대규모 공간 구성으로 대표된다.
정원사별 대표 요소를 외우기보다 정원명과 핵심 장치가 정확히 연결되는지를 보는 문제가 많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축선, 대칭, 수경 요소를 받아들여 프랑스식으로 변형한 설명이므로 옳다. 프랑스 조경은 이탈리아 양식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대칭과 공간 통제로 발전시켰다.

② O
퐁텐블로는 프랑스 르네상스 정원의 대표 사례로, 왕의 화단을 구획하고 중심 수반과 분수로 질서를 부여한 구성이 나타난다. 네 부분으로 나뉜 화단과 중앙 수공간이라는 설명은 퐁텐블로의 전형적 특징에 부합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 클루(Saint-Cloud)는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2.4km의 거대한 테라스"이다. 2.4km의 거대한 르 노트르 테라스로 대표되는 곳은 생클루가 아니라 생제르맹앙레(Saint-Germain-en-Laye)이다. 올바르게는 "생제르맹앙레에는 르 노트르가 조성한 약 2.4km의 대테라스가 있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르 노트르는 평면적 파르테르와 기하학적 터 가르기, 강한 축선과 원근을 활용한 프랑스 정원양식을 완성한 인물이다. 따라서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정원양식을 창안하였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생클루와 생제르맹앙레를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수험생이 "르 노트르의 프랑스 정원"이라는 큰 범주만 기억하고 개별 정원의 대표 장치를 정확히 연결하지 못하면 ③을 지나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럽 정원사는 정원명, 조성자, 대표 장치의 1대1 대응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어느 정원에 어떤 테라스·수반·파르테르가 있는가"를 먼저 대조하면 지명 바꿔치기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제르맹앙레는 2.4km 대테라스, 생클루는 별도 정원이다.

NoteBase

문 7. 1740년대에 중국 여행 시 중국 정원 양식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영국 정원 양식에 중국 정원 양식인 정자, 다리, 탑 등을 가미한 인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험프리 렙턴(H. Repton)
② 란셀롯 브라운(L. Brown)
③ 윌리엄 켄트(W. Kent)
④ 윌리엄 챔버(W. Chamber)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국 정원사와 대표 정원 양식의 연결, 특히 중국 취향의 정자·다리·탑을 영국 정원에 도입한 인물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험프리 렙턴: 브라운 이후의 영국 풍경식 정원을 정리한 인물로, 레드북을 통해 개조 전후의 설계안을 제시한 인물이다.
란셀롯 브라운: 대규모 잔디면, 완만한 지형, 곡선형 수면을 활용한 자연주의 풍경식 정원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윌리엄 켄트: 정형식에서 벗어나 회화적이고 자연스러운 영국 풍경식 정원의 초기 전개를 이끈 인물이다.
윌리엄 챔버: 1740년대 중국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풍 정자, 다리, 탑 등 이국적 장식을 영국 정원에 소개한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중국 정원 양식의 정자·다리·탑을 영국 정원에 가미한 인물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렙턴은 브라운 이후 풍경식 정원을 보완·정리한 인물이며, 대표 키워드는 레드북과 경관 개조안 제시이다.
2번 X: 중국풍 장식 도입 인물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브라운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자연주의 경관을 대표하며, 넓은 잔디밭과 곡선형 호수 같은 자연스러운 지형 처리로 연결된다.
3번 X: 중국 취향의 탑과 정자를 들여온 인물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켄트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초기 조성자에 가깝고, 회화적·목가적 자연 경관 구성으로 연결된다.
4번 O: 윌리엄 챔버는 1740년대 중국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중국풍 건축과 장식 요소를 영국 정원에 소개한 인물이다. 정자, 다리, 탑 같은 요소를 가미했다는 설명과 가장 정확하게 맞는다.

오답 포인트

브라운, 켄트, 렙턴은 모두 영국 풍경식 정원사이므로 이름만 보면 서로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중국 여행', '중국 정원 양식', '정자·다리·탑'이며, 이 이국 취향의 연결 고리는 윌리엄 챔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먼저 문장 속 고유 단서를 잡아 대표 키워드와 바로 연결한다. 자연주의 풍경식이면 브라운·켄트·렙턴 계열을, 중국풍 장식과 탑이면 챔버를 우선 떠올리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챔버 = 중국풍 정자·다리·탑, 브라운 = 자연주의 풍경식, 렙턴 = 레드북, 켄트 = 초기 풍경식 정원 전개이다.

NoteBase

문 8. 낭만주의를 근간으로 한 조경설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정된 단일 시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과 일점투시도 기법이다.

② 이성(理性)의 자연 지배를 표현한 장엄양식(grand manner)이다.

③ 미의 판단기준을 인간의 이성에 두고 있는 이성주의 미학이다.

④ 굴곡과 차폐에 의해 공간을 넓게 느끼게 하는 눈속임(illusion) 효과가 특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낭만주의에 바탕을 둔 풍경식 조경의 공간 처리 방식과, 고전주의·이성주의적 설계 태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낭만주의 조경은 자연스러운 굴곡, 차폐, 연속적 시점 변화로 감성적 풍경을 경험하게 하는 설계이다.
정형적 조경이나 고전적 원근법은 고정된 시점, 축선, 질서, 이성적 통제를 중시한다.
따라서 '단일 시점·자연 지배·이성 중심 미학'은 낭만주의 조경과 거리가 멀고, '굴곡과 차폐에 의한 공간 착시'가 낭만주의적 풍경 구성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고정된 단일 시점'과 '일점투시도'이다. 낭만주의 조경은 한 점에서 완결되는 정면 구도보다 이동하면서 장면이 바뀌는 연속 경험을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굴곡진 동선과 변화하는 시점으로 풍경을 체험하게 하는 설계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성의 자연 지배'이다. 낭만주의 조경은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지배하기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풍경과 정서를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인공 통제의 과시보다 자연미의 연출과 감성적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미의 판단기준을 인간의 이성에 둔다'는 점이다. 이는 이성주의 미학의 설명이지 낭만주의 조경의 설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감성, 정서, 상상력, 비정형적 자연미를 중시하는 미학이다.
④ O: 굴곡진 길, 식재나 지형에 의한 차폐, 시야의 단계적 개방은 실제보다 더 깊고 넓은 풍경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 기법이다. 낭만주의 계열의 풍경식 조경은 이런 illusion 효과로 자연스러운 변화와 감성적 장면을 만든다.

오답 포인트

낭만주의를 '자연'이라는 단어만으로 잡으면 ②에 끌리기 쉽고, 미학사 용어에 집중하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은 철학 일반이 아니라 조경 설계 기법을 묻기 때문에, 실제 공간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낭만주의 조경 문제는 축선·대칭·고정 시점·이성 지배가 나오면 먼저 배제하고, 굴곡, 차폐, 연속 시점, 자연스러운 풍경 연출이 나오면 정답 후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낭만주의 조경 = 고정 시점이 아니라 이동 시점, 직선 축이 아니라 굴곡과 차폐, 통제가 아니라 풍경적 착시이다.

NoteBase

문 9. 과거에 수렵장이었다가 현재 공원이 된 곳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그린 공원(Green Park)

② 프랑스의 볼로뉴숲(Bois de Boulogne)

③ 독일의 티에르가르텐(Tiergarten)

④ 네덜란드의 보스 공원(Bos Park)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양 도시공원사에서 과거 수렵장이 공원으로 전환된 사례와 근대에 새로 계획된 도시공원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렵장 전환형 공원은 왕실이나 귀족의 사냥터가 시대 변화에 따라 시민 공원으로 바뀐 공간이다. 키워드는 왕실, 사냥, 개방이다.
근대 계획공원은 시민 휴식과 recreation을 위해 처음부터 도시계획적으로 조성한 공원이다. 키워드는 계획 조성, 도시공원, 인공 식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린 공원은 영국 왕실 공원 계열이며, 공식 소개에서도 헨리 8세의 사냥터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과거 수렵장이었다가 현재 공원이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O
불로뉴숲은 파리시 공식 소개에서 프랑스 왕들의 수렵장이었다가 서부 파리의 대규모 휴식 공간이 된 곳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수렵장 전환형 공원에 해당한다.

③ O
티에르가르텐은 베를린시 공식 소개에서 대선제후의 사적 수렵장이었다가 조경된 도시공원으로 발전한 곳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과거 수렵장이 공원으로 바뀐 대표 사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보스 공원을 수렵장 전환형 공원으로 본 점이다. 네덜란드의 보스 공원은 보통 암스테르담세 보스처럼 20세기 도시계획 아래 조성된 근대 공원으로 이해하며, 공식 역사 소개도 1900년 이후 구상되어 1930년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근대에 새로 계획·조성된 공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외국 공원 이름을 모두 비슷한 유럽 왕실 공원으로 묶어 보는 데 있다. ④는 이름에 Bos가 들어가 숲과 사냥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분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립 배경이 수렵장 전환인지 계획 조성인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사 문제에서 유럽 유명 공원이 나오면 먼저 왕실·귀족의 사냥터였는지, 아니면 근대 도시계획으로 처음부터 시민공원으로 만든 것인지를 본다. 왕실 수렵장의 개방이면 수렵장 전환형이고, 실업구제·도시녹지 확충·계획 식재가 핵심이면 근대 계획공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그린파크·불로뉴숲·티에르가르텐은 수렵장 전환형이고, 보스 공원은 근대 계획공원이다.

NoteBase

문 10.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려시대 정궁(正宮)인 만월대(滿月臺)에 부속된 궁원의 구성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지(東池)
② 만춘정(萬春亭)
③ 석가산(石假山)
④ 사루(紗樓)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정궁 만월대에 부속된 궁원 요소로 기록되는 명칭과, 다른 공간의 누정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지는 만월대 궁원에 조성된 연못이다.
사루는 만월대 궁원에서 모란으로 이름난 누각이다.
석가산은 괴석을 쌓아 산수 경관을 축소 재현한 인공 산이다.
만춘정은 만월대 부속 공원의 구성요소로 확인되는 명칭이 아니라 다른 궁원 계열 기록에 나타나는 누정 명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지는 만월대 동쪽 궁원에 조성된 연못으로 기록되는 대표 요소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만춘정'이다.
만춘정은 만월대 부속 공원의 구성요소로 확인되는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만월대 궁원 요소로 동지, 사루, 석가산 등이 기록된다.

③ O
석가산은 괴석을 쌓아 만든 인공 산으로, 고려 궁원에서 확인되는 구성요소이다. 만월대 관련 기록에도 석가산이 나타난다.

④ O
사루는 모란으로 유명한 만월대 궁원 시설로 기록된다. 따라서 만월대 부속 공원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루, 상춘정, 만춘정처럼 이름이 비슷한 누정 명칭을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특히 '춘정'이라는 말만 보고 만월대의 상춘정과 만춘정을 같은 계열로 오인하면 ②를 고르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궁원 문제는 공간명과 시설명을 짝으로 묶어 판단한다. 만월대는 동지·사루·석가산처럼 반복 출제되는 요소를 먼저 떠올리고, 낯선 누정 명칭이 나오면 만월대 기록에 실제로 붙는 이름인지부터 가려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만월대 궁원은 동지·사루·석가산이고, 만춘정은 만월대 목록이 아니다.

NoteBase

문 11. 전통 공간의 지당(池塘)과 관련된 건축물 구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덕궁 후원 부용지 - 부용정

② 함안 무기연당 국담 - 하엽정

③ 영양 서석지 - 경정

④ 경주 서출지 - 이요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전통 공간의 지당 이름과 그 지당에 딸린 정자·서재 등의 건축물 구성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창덕궁 부용지는 부용정과 짝을 이루는 대표적 궁궐 연못이다.
영양 서석지는 연못 서쪽에 경정이 놓이는 별서정원이다.
경주 서출지에는 후대에 이요당이 세워져 연못 경관과 연결된다.
함안 무기연당에서는 연못을 국담이라 하였고, 관련 정자는 하환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는 부용정과 한 공간을 이룬다. 부용정은 부용지에 연접하여 세운 정자이므로 연결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하엽정'이다. 함안 무기연당의 연못은 국담이라 불렸고, 그 연못가의 관련 정자는 하환정이다. 틀린 표현을 고치면 '함안 무기연당 국담 - 하환정'이 된다.

③ O
영양 서석지는 연못을 중심으로 북쪽에 주일재, 서쪽에 경정이 배치되는 구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석지와 경정의 연결은 옳다.

④ O
경주 서출지는 신라시대 연못이고, 그 연못가에는 조선 후기에 이요당이 세워져 함께 전해진다. 따라서 서출지와 이요당의 연결도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무기연당은 공간명인 무기연당, 연못 이름인 국담, 정자 이름인 하환정이 함께 등장해 명칭 층위를 섞기 쉽다. ②는 실제 명칭과 비슷한 한 글자 차이의 가짜 이름을 끼워 넣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지당 이름만 따로 외우지 않고 '연못 이름-대표 건축물-배치 위치'를 한 묶음으로 판단하면 정확도가 높다. 특히 고유명사가 낯설게 바뀌어 있으면 실제 전승 명칭인지 먼저 대조해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국담의 정자는 하환정, 서석지의 서쪽 정자는 경정, 부용지의 정자는 부용정이다.

NoteBase

문 12. 장원서(掌苑署)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조 12년(1466)에 상림원(上林園)이 장원서(掌苑署)로 개칭되었다.

② 공조에 소속되어 왕궁 원유(苑囿)와 과원(果園)을 관리하였다.

③ 과원색(果園色)은 장원서(掌苑署)의 하부조직이다.

④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원서의 설치 배경, 소속과 기능, 하부 조직, 존속 시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장원서는 1466년(세조 12) 상림원을 개편해 설치한 조선시대 관청으로, 궁중의 원유와 화과를 관리하고 왕실과 관청에 과일과 화초를 조달하던 기관이다.
판단 축은 설치 시기와 명칭 변경, 공조 계통의 소속과 업무, 과원색 같은 내부 색 조직, 그리고 폐지 시기이다.
장원서는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되었으며, 최종 존속 시점은 1882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조 12년(1466)에 상림원이 장원서로 개칭·개편되었다는 내용이 맞다.
② O: 장원서는 공조 계통의 관청으로서 궁중의 원유와 과원, 화과를 관리하는 기능을 맡았으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③ O: 과원색은 장원서 내부의 여러 색 가운데 하나로, 각종 과수와 화초 재배를 담당한 하부 조직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장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인 1882년에 이미 폐지되었다.

오답 포인트

④는 폐지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늦춰 놓은 선지이다. 조선시대 관청의 폐지 시기를 근대 이후와 막연히 연결하면 틀리기 쉽고, 장원서는 연산군 때의 일시 폐지와 1882년의 최종 폐지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시대 관청 문제는 설치 시기, 개칭 여부, 담당 업무, 하부 조직, 최종 폐지 시기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일제강점기"처럼 시기를 크게 뒤로 미루는 표현은 실제 존속 연한과 먼저 맞춰 본다.

암기 포인트

장원서 = 1466년 상림원 개편, 원유·화과 관리, 과원색 보유, 1882년 폐지이다.

NoteBase

문 13.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할 때, 기술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생리(生利) → 산수(山水) → 인심(人心) → 지리(地理)
② 생리(生利) → 산수(山水) → 지리(地理) → 인심(人心)
③ 지리(地理) → 생리(生利) → 인심(人心) → 산수(山水)
④ 지리(地理) → 인심(人心) → 산수(山水) → 생리(生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환의 『택리지』 복거총론에서 살기 좋은 곳을 판단하는 기준의 제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지리(地理) - 땅의 형세와 위치가 살 만한 터전인지 먼저 본다.
2. 생리(生利) - 그곳에서 생업을 꾸리고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따진다.
3. 인심(人心) - 주민의 풍속과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살핀다.
4. 산수(山水) - 경관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에 본다.

왜 이 순서: 터전의 기본 조건인 지리를 먼저 확인해야 그다음 생활 가능성인 생리와 사람 사는 분위기인 인심을 판단할 수 있고, 산수는 최종적으로 더하는 감상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생리를 첫 단계에 두고 산수를 둘째에 둔 점이 틀리다. 『택리지』의 복거 기준은 지리에서 출발해 생리, 인심, 산수로 이어진다. 틀린 표현은 '생리 → 산수 → 인심 → 지리'이고, 올바르게는 '지리 → 생리 → 인심 → 산수'이다.
② X: 지리를 셋째에 두고 인심을 마지막에 둔 점이 틀리다. 입지 조건인 지리가 먼저 와야 이후의 생업 가능성과 사람살이를 판단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생리 → 산수 → 지리 → 인심'이고, 올바르게는 '지리 → 생리 → 인심 → 산수'이다.
③ O: 지리 → 생리 → 인심 → 산수의 배열이 복거총론의 제시 순서와 일치한다. 터전의 조건, 생활의 이익, 사람의 풍속, 자연 경관의 순서로 판단한다.
④ X: 지리 다음에 곧바로 인심을 둔 점과 생리를 맨 끝으로 보낸 점이 틀리다. 생활 기반인 생리는 인심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지리 → 인심 → 산수 → 생리'이고, 올바르게는 '지리 → 생리 → 인심 → 산수'이다.

오답 포인트

생리와 산수를 모두 '살기 좋은 조건'으로 묶어 외우면 순서가 뒤섞이기 쉽다. 이 문항은 특히 산수를 앞쪽에 배치하거나 생리를 뒤로 미루는 선지를 통해, 생활 기반과 경관 요소의 선후를 혼동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택리지』의 복거 기준 문제는 먼저 땅 자체를 보는 지리를 시작점으로 잡고, 이어서 먹고살 수 있는 생리, 사람의 풍속인 인심, 마지막으로 경관 요소인 산수를 배치하면 된다. 기본 조건에서 부가 조건으로 간다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택리지 복거 순서는 '지생인산'이다.

NoteBase

문 14. 유상곡수(流觴曲水)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왕희지와 문인명사들의 곡수연(曲水宴)

② 일본 나라시대 평성궁(平城宮)의 곡지(曲池)

③ 조선시대 담양 소쇄원 48영

④ 고려시대 기홍수의 퇴식재 원림의 곡지(曲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상곡수가 무엇인지와 동아시아 원림 사례 중 유상곡수 문화와 직접 연결되는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상곡수는 굽이치는 물길에 술잔을 띄워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수공간 문화이자 그 물길 장치이다. 곡지는 굽은 형태의 연못을 뜻하는 말로, 술잔을 흘려 보내는 곡수거와는 개념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왕희지와 문인명사들의 난정 곡수연은 유상곡수의 대표적 원형 사례이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회를 연 장면이므로 유상곡수와 직접 관련된다.
2번 O: 일본 나라시대 평성궁의 곡수 시설은 중국식 곡수 문화가 일본 궁원에 수용된 사례로 이해된다. 따라서 유상곡수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3번 O: 담양 소쇄원 48영에는 복류전배와 같이 물길에 술잔을 띄우는 정취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 유상곡수 풍류와 연결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퇴식재 원림의 곡지를 유상곡수 사례로 보는 점이다. 기홍수의 퇴식재 원림에 나타나는 곡지는 굽은 연못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술잔을 띄워 흘리는 곡수거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퇴식재 원림의 곡지는 곡선형 연못 사례이지 유상곡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곡지와 곡수를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4번에 끌리기 쉽다. 유상곡수의 핵심은 굽은 모양 자체가 아니라 술잔이 흐르는 물길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회 문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곡수연, 유배거, 술잔을 띄움, 시회 같은 표현이 보이면 유상곡수와 직접 연결한다. 반대로 곡지, 연의지처럼 고여 있는 연못의 형태만 말하면 유상곡수인지 한 번 더 걸러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유상곡수는 잔이 흐르는 물길이고, 곡지는 물이 고이는 굽은 연못이다.

NoteBase

문 15. 조선시대 조경 관련 문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순원화훼잡설』에는 귀래정 주변의 조경 현황과 44종의 조경식물이 언급되고 있다.

② 『지봉유설』의 양화편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등 29종 조경식물의 특성과 재배법이 수록되었다.

③ 『산림경제』에는 화목과 과목의 재식 시기 및 접목 관리 요령 등이 약술되었다.

④ 『양화소록』의 훼목편에는 매화, 모란, 장미, 영산홍, 동백 등 19종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조경 관련 문헌의 저서명, 편명, 수록 내용과 식물 수의 대응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원화훼잡설』은 신경준이 귀래정 일대의 조경 현황과 그곳에 도입된 화훼를 기록한 문헌이며, ①에서 말하는 귀래정 주변 44종의 조경식물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지은 조선 후기 실용 농서로, 화훼 재배를 다루는 양화(養花)편과 나무·과수의 재식·접목을 다루는 종수(種樹)편을 갖추고 있다.

『지봉유설』은 이수광이 지은 백과사전식 저술로, 식물 관련 내용은 훼목부(卉木部)에 실려 있으며 재배 실용서가 아니라 항목별 지식을 모은 유서(類書)이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이 지은 조선 전기 원예서로, 화목의 성질과 재배법·감상법을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이며 노송·국화·매화·석류·동백 등 16종의 화목을 다룬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순원화훼잡설』은 신경준이 귀래정 일대의 조경 현황과 그곳 화훼를 기록한 문헌으로, 귀래정 주변의 조경 현황과 44종의 조경식물을 언급한다는 서술은 문헌명·기록 대상·식물 수가 모두 들어맞아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지봉유설』의 양화편'이라는 대응이다. 『지봉유설』은 이수광이 지은 백과사전식 유서로, 식물 관련 내용은 양화편이 아니라 훼목부(卉木部)에 실려 있으며 재배법을 정리한 실용서도 아니다. 양화편은 오히려 『산림경제』의 편명이므로, 지봉유설에 양화편과 29종의 재배법이 수록되었다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X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지은 실용 농서로, 종수(種樹)편에서 과목·화목의 재식 시기와 접목 관리 요령을, 양화(養花)편에서 화훼 배양을 실제로 다룬다. 따라서 이 선지의 서술 자체는 산림경제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나, 이 문항은 여러 선지 가운데 가장 옳은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고 문헌명·기록 대상·식물 수까지 빠짐없이 정확한 선지는 ①이므로 정답에서는 제외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양화소록』의 훼목편'과 '19종'이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이 지은 조선 전기 원예서로 노송·국화·매화·석류·동백 등 16종의 화목을 성질과 재배법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며, 훼목부라는 편명은 양화소록이 아니라 『지봉유설』에 속한다. 따라서 훼목편에 19종을 설명했다는 대응은 편명과 식물 수가 모두 어긋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문헌 이름은 익숙하게 두고 편명, 식물 수, 수록 내용을 서로 바꿔 끼운 데 있다. 특히 『지봉유설』, 『산림경제』, 『양화소록』은 모두 식물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세부 대응 관계를 외우지 않으면 ②와 ④를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시대 조경 문헌 문제는 먼저 책의 성격을 구분하면 풀린다. 귀래정 조경 기록이면 『순원화훼잡설』, 실용 농서의 양화편이면 『산림경제』, 백과사전식 식물 지식이면 『지봉유설』, 조선 전기 원예서이면 『양화소록』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원화훼잡설=귀래정 조경 기록, 산림경제=양화편, 지봉유설=백과사전식 식물 항목, 양화소록=조선 전기 원예서이다.

NoteBase

문 16. 별서의 조영 시기를 빠른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영양 서석지 → 대전 남간정사 → 강진 다산초당 → 서울 부암정

② 강진 다산초당 → 영양 서석지 → 대전 남간정사 → 서울 부암정

③ 대전 남간정사 → 서울 부암정 → 강진 다산초당 → 영양 서석지

④ 영양 서석지 → 강진 다산초당 → 서울 부암정 → 대전 남간정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 별서의 조성 시기를 이른 것부터 늦은 것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영양 서석지 -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조성된 별서 정원이다.
2. 대전 남간정사 - 송시열이 숙종 9년인 1683년에 지은 별서이다.
3. 강진 다산초당 - 이 문항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1808년에 이곳으로 옮겨와 연지와 석가산을 정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4. 서울 부암정 - 윤웅렬의 별장으로 1906년에 건립된 별서이다.

왜 이 순서: 서석지는 17세기 초, 남간정사는 17세기 후반, 다산초당은 19세기 초, 부암정은 20세기 초에 해당하므로 시대가 뒤로 갈수록 늦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영양 서석지(1613) → 대전 남간정사(1683) → 강진 다산초당(1808) → 서울 부암정(1906)의 순서이므로 가장 빠른 시기부터 바르게 배열하였다.

② X

- 틀린 부분: 강진 다산초당을 영양 서석지보다 먼저 두었다.
- 올바르게는: 영양 서석지 → 대전 남간정사 → 강진 다산초당 → 서울 부암정이다.

③ X

- 틀린 부분: 대전 남간정사를 영양 서석지보다 먼저 두었다.
- 올바르게는: 영양 서석지가 1613년으로 가장 이르고, 그 다음이 대전 남간정사이다.

④ X

- 틀린 부분: 강진 다산초당을 대전 남간정사보다 앞에 두고, 서울 부암정을 대전 남간정사보다 앞에 두었다.
- 올바르게는: 대전 남간정사보다 늦은 강진 다산초당과 서울 부암정은 그 뒤에 와야 하므로 영양 서석지 → 대전 남간정사 → 강진 다산초당 → 서울 부암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다산초당은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의 상징성 때문에 오래된 별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다산이 1808년에 초당으로 옮겨와 정비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해야 한다. 부암정도 전통 한옥 이미지 때문에 조선 전기 유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건립은 1906년이어서 가장 늦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 순서 문제는 개별 연도를 모두 세밀하게 외우기보다 세기 순으로 먼저 끊어 판단하면 된다. 이 문항은 17세기 초 서석지, 17세기 후반 남간정사, 19세기 초 다산초당, 20세기 초 부암정으로 정리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암기 포인트

서석지 1613 → 남간정사 1683 → 다산초당 1808 → 부암정 1906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7. 중국 대표 정원 유적들의 조성 시기를 빠른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창랑정 → 사자림 → 졸정원 → 원명원

② 사자림 → 졸정원 → 창랑정 → 원명원

③ 창랑정 → 졸정원 → 사자림 → 원명원

④ 사자림 → 창랑정 → 원명원 → 졸정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대표 정원 유적을 송·원·명·청의 조성 시기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창랑정(송) -> 사자림(원) -> 졸정원(명) -> 원명원(청)
창랑정은 송대의 이른 시기 정원이고, 사자림은 원대 정원이며, 졸정원은 명대 정원이고, 원명원은 청대 황가원림이다.
왜 이 순서인가: 원대 사자림은 송대 창랑정보다 뒤에 오고, 명대 졸정원은 원대 사자림 뒤에 오며, 청대 원명원은 네 유적 중 가장 늦다.

선지별 해설

1번: O. 창랑정-사자림-졸정원-원명원은 송 -> 원 -> 명 -> 청의 흐름과 일치한다. 네 정원의 조성 시기를 빠른 순서대로 정확히 배열한 보기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사자림을 창랑정보다 먼저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창랑정이 송대이므로 가장 앞에 와야 하고, 사자림은 원대이므로 그 다음에 온다.
3번: X. 틀린 부분은 졸정원을 사자림보다 먼저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사자림이 원대, 졸정원이 명대이므로 사자림 뒤에 졸정원이 와야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사자림을 가장 앞에 두고 원명원을 졸정원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창랑정이 가장 앞이고, 원명원은 청대이므로 졸정원보다 늦다.

오답 포인트

창랑정, 사자림, 졸정원이 모두 소주의 대표 정원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시기로 묶으면 순서를 놓치게 된다. 이 문항은 정원의 위치나 명칭이 아니라 조성 왕조의 선후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사 순서 문제는 각 정원을 먼저 왕조와 연결해 시대축을 세우면 된다. 송 -> 원 -> 명 -> 청의 큰 흐름을 잡은 뒤 보기를 대조하면 선후가 바로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창송 사원 졸명 원청으로 묶으면 창랑정 -> 사자림 -> 졸정원 -> 원명원의 시대 순서가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일본 고산수 정원의 형성 배경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수묵산수화와 분재로 구성되어 있다.

② 평안시대부터 이어져 온 큰 면적의 형식을 초월한 작은 정원이라 할 수 있다.

③ 용안사의 방장정원, 대덕사 대선원, 계리궁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④ 고산수 수법은 이후에 도산시대와 강호시대를 이어 현대에까지 계승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고산수 정원의 형성 배경, 대표 사례, 그리고 다른 일본 정원 양식과의 구별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산수 정원은 물을 실제로 쓰지 않고 돌, 자갈, 백사, 이끼 등으로 산수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일본의 건조 경관 정원이다.
선종의 영향 아래 명상성과 절제미가 강하며, 큰 연못 중심 정원을 축소·추상화해 좁은 공간 안에 자연을 축경하는 성격이 있다.
대표 사례는 용안사 방장정원, 대덕사 대선원처럼 선종 사찰의 건식 정원이고, 계리궁 정원은 회유식 정원 계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산수는 선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정원 양식이 맞다. 또한 실제 자연을 축약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묵산수화적 구성과 분재적 축소미가 반영되므로 선지의 취지가 타당하다.
② O: 고산수는 평안시대 이래의 큰 연못 중심 정원을 더 작은 공간에 압축하고 추상화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넓은 면적의 실경 재현보다 작은 공간의 관조성과 상징성이 핵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계리궁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이다. 용안사 방장정원과 대덕사 대선원은 대표적인 고산수 정원이지만, 계리궁 정원은 건식의 고산수 대표작이 아니라 회유식 정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O: 고산수 수법은 무로마치기의 성립 이후에도 도산시대와 강호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계승되었다. 따라서 특정 시대에만 한정된 일시적 양식으로 보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대표 사례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용안사와 대선원은 고산수로 바로 연결되지만, 계리궁은 일본 정원사에서 회유식 정원의 대표 예로 더 자주 묶인다. 수험생이 일본 정원의 유명 장소 이름만 외우고 양식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 문제는 먼저 양식의 핵심 재료와 감상 방식을 본다. 물 없이 돌·백사로 산수를 추상화하면 고산수이고, 연못을 따라 걸으며 경관이 전개되면 회유식 정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대표 장소가 어느 양식에 묶이는지 대조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고산수는 선종, 돌·백사, 추상화, 관조형 정원이고 계리궁은 회유식 정원이다.

NoteBase

문 19. 중국 원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야』에는 원림의 지형, 땅가름과 차경 등의 원림조성법이 기술되어있다.

② 졸정원은 중원, 동원, 서원, 북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양식의 건축과 다채로운 경관구역이 조화된 원림이다.

③ 소주지방의 졸정원, 사자림, 유원, 창랑정 등은 사가 원림에 속한다.

④ 작원(勺園)은 물을 교묘히 잘 이용한 정원으로 이름이 높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사가원림의 대표 사례, 『원야』의 내용, 졸정원의 공간 구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원야』는 명대 계성이 원림의 입지 선정, 지형 처리, 차경 등 조성 원리를 정리한 이론서이다.
사가원림은 문인·관료·부호가 조성한 개인 정원이며, 소주의 졸정원·사자림·유원·창랑정이 대표적이다.
졸정원은 일반적으로 동원, 중원, 서원의 3부분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원야』에는 원림의 입지와 지형 처리, 공간 분할, 차경 등 조성 기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중원, 동원, 서원, 북원으로 구성'이라는 표현이다. 졸정원은 일반적으로 동원, 중원, 서원의 3부분으로 구분하므로 북원을 기본 구성으로 넣은 것이 틀리다.
3번 O: 소주의 졸정원, 사자림, 유원, 창랑정은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고전 사가원림으로 보는 것이 맞다.
4번 O: 작원(勺園)은 물을 교묘하게 활용한 수경 중심의 사가원림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졸정원의 구성에 '북원'을 끼워 넣어 기억이 흐릿한 수험생을 흔드는 선지이다. 소주 명원을 황가원림이 아니라 사가원림으로 묶어 기억하지 못하면 3번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원림 문제는 먼저 이론서 내용인지, 원림 유형 구분인지, 대표 원림의 공간 구성인지로 나눈다. 이후 대표 정원의 표지어를 대조하면 틀린 단어 하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야』는 조성 원리서, 소주 4대 명원은 사가원림, 졸정원은 동원·중원·서원이다.

NoteBase

문 20. 전통 조경공간의 구성과 관련된 축의 설정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궁궐이나 사찰은 다수의 건물군으로 형성되어 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② 평지형 사찰은 절선축(折線軸), 산지형 사찰은 곡선축의 형태가 많다.

③ 산지형 사찰은 시각 변환점이 많아서 시각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된다.

④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송광사와 같은 사찰은 단일축이 강조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사찰 공간에서 평지형과 산지형의 축선 구성, 그리고 축 변화에 따른 시각 경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궁궐과 사찰은 여러 건물군을 질서 있게 조직하기 위해 방향성과 중심성을 드러내는 축선을 두는 경우가 많다.
평지형 사찰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놓여 직선축이 나타나기 쉽다.
산지형 사찰은 지형에 순응하면서 축이 꺾이는 절선축이 많고, 이동하면서 시점이 자주 바뀌어 시각 구조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궁궐이나 사찰은 다수의 건물군을 축선으로 조직하여 중심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틀린 부분은 '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이다. 올바르게는 '여러 건물군이 축에 따라 질서 있게 배치되어 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평지형 사찰은 절선축, 산지형 사찰은 곡선축'이다. 올바르게는 '평지형 사찰은 직선축, 산지형 사찰은 절선축의 형태가 많다'이다.
③ O: 산지형 사찰은 경사진 지형에 맞추어 공간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축이 꺾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진입 과정에서 시각 변환점이 많아지고, 보는 방향과 장면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된다.
④ X: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송광사 같은 대표 사찰은 산지 입지의 영향으로 단일한 직선축만 강조되기보다 절선축이나 복합적인 축 구성이 두드러진다. 틀린 부분은 '단일축이 강조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지형에 순응한 절선축과 다층적 공간 전개가 강조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평지형과 산지형의 축 유형을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④는 유명 사찰을 모두 단일축으로 단순화한 선지이고, ①은 건물군이 많으면 오히려 축이 약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축 문제는 먼저 지형부터 구분하면 풀리기 쉽다. 평지형이면 직선축을, 산지형이면 절선축과 시점 변화의 증가를 먼저 연결하면 정답 선지를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평지 사찰은 직선축, 산지 사찰은 절선축, 산지 사찰은 시각 변화점이 많다.

NoteBase